



미국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 증가

최 원 선임연구원

■ 그동안 장수리스크 거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미국의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3년 영국 음반회사인 EMI와 영국 군수회사인 BAE 등이 장수리스크 전가를 위하여 바이아웃(Buy-out)¹⁾ 또는 장수스왑(Longevity swap)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영국 보험회사인 Aviva가 3개 재보험회사들과 50억 파운드 규모의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2014년 하반기 들어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전가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의 수가 늘어나 미국의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2014년 하반기 들어 미국의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가 증가한 것은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한 데다 공급측면에서 미국 푸르덴셜보험(Prudential Financial)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임.

- 고령화 등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장수리스크를 전가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대되고 있음.
- 2014년 미국 푸르덴셜보험이 퇴직연금 장수리스크와 관련하여 거래한 리스크 전가 거래 규모는 모두 350억 달러에 달함.
 - 미국 푸르덴셜보험은 2014년 9월 미국 전자기업인 Motorola와 미국 제약회사인 Bristol-Myers Squibb와 각각 31억 달러,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아웃 거래를 체결하였음.
 - 비록 미국 기업과의 거래는 아니지만, 미국 푸르덴셜보험은 2014년 7월 영국의 통신회사인 BT Group과 사상 최대 규모의 장수스왑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보험회사인 Legal & General과 장수리스크 재보험(Longevity reinsurance) 계약을 체결하였음.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을 운용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고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의미함.

〈표 1〉 2014년 미국과 영국의 장수리스크 거래 현황

날짜	리스크 전가 주체	리스크 전가 대상	리스크 전가 방법	금액
2014년 12월	TRW	MetLife	Buy-out	4억 달러
2014년 10월	Legal & General	Prudential Financial	Longevity reinsurance	22억 달러
2014년 9월	Motorola	Prudential Financial	Buy-out	31억 달러
2014년 9월	Bristol-Myers Squibb	Prudential Financial	Buy-out	14억 달러
2014년 8월	Rothsay Life	Prudential Financial	Longevity reinsurance	17억 달러
2014년 7월	BT Pension Scheme	Prudential Financial	Longevity swap	274억 달러 ¹⁾
2014년 6월	Total UK Pension Plan	PIC/Hannover Re	Buy-in & Longevity reinsurance	16억 파운드
2014년 4월	AkzoNobel	L&G/Prudential(UK)	Buy-in, bulk annuity & longevity reinsurance	36억 파운드
2014년 4월	Aviva	Swiss Re/Munich Re / SCOR	Longevity swap	50억 파운드

주: 1) 1.71달러/파운드 환율 기준으로 160억 파운드를 달러 가치로 환산함.
 자료: A.M. Best research(<http://www.artemis.bm>).

■ 미국의 새로운 퇴직연금 사망표(mortality table) 적용으로 퇴직연금 운영주체들의 퇴직연금 관련 부채가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0월 미국 계리사회(SOA, Society of Actuaries)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여 새로운 퇴직연금 사망표를 발표하였음.
- 새로운 퇴직연금 사망표 적용으로 퇴직연금 운영주체들의 퇴직연금 부채 규모가 현 수준의 4~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회계장부상에 이와 같은 부채 증가분이 곧바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운영주체들은 늘어난 퇴직연금 관련 부채 부담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며,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²⁾의 보험료율 상승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운영 주체들의 비용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향후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 보험료율이 30% 정도 상승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가입자 1인당 49달러에서 64달러로 증가하였음.
-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은 자신이 가진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 관련 리스크를 전가하고자 할 것이며, 따라서 퇴직연금 장수리스크 거래는 증가할 것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장수리스크 거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수리스크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서 전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제적인 장수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A.M. Best 등)